




 <p>중국전문가포럼</p> <p><a href="http://csf.kiep.go.kr/">http://csf.kiep.go.kr/</a></p> <p>2018. 07. 15.</p>	<p>「이슈&amp;트렌드」</p> <p><b>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관련 중국 내 반응</b></p> <p>작성   KIEP 북경사무소</p>
--	---

- 7월 11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10%) 부과 발표에 대해 보복할 수밖에 없다는 맞대응 방침을 표명했으나 당혹스러움 노출
-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엄정한 항의를 표하면서 보복 조치 시행 및 WTO 추가제소 방침을 발표
  - 그러나 상무부의 성명에 “미국의 행동이 경악스럽다(震惊)”,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보복을 할 것이다(不得不作出必要反制)” 등 반응이 노출됨.
  - 미국이 이미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관세 부과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 내용보다는 발표 시점에 당혹<sup>1)</sup>
    - 7월 6일, 관세 발효(340억 달러 규모) 이후 2주 내로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차 관세 관련 조치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
    - 또한 지난 6일 미국의 관세부과(340억불 규모) 실시에 대해 즉시 반격에 나선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의 추가관세 발표 이후 4시간 이상이 지나서 공식입장을 표명했으며, 구체적인 보복 조치도 발표하지 않음.
    - 6월 18일,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추가관세 관련 성명 발표 후, 중국 상무부 및 언론은 미국에 대한 비판과 보복의지 등을 비교적 강하게 표현
    - 상무부에 이은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에서는 미국의 행위가 전형적인 무역패권주의이며 중국은 필요한 반격을 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임을 건조하게 표현
- 중국 언론은 미국의 조치를 속보로 보도하면서, 주요 전문가 및 미국 내 비판적 반응을 인용하여 트럼프 정부를 비판, 단 원색적 비난이나 강경한 태도 견지 주장은 회소
- 미국 USTR 대표 Robert Lighthizer의 성명을 직접 인용하여 보도
    - 중국이 지난 주 취했던 행동(대미국 관세 부과)은 국제법에 의거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고 트럼프 정부는 1년 이상 인내심을 가지고 중국의 불공정한 방법 중단, 시장개방, 진정한 시장경쟁 참여를 촉구하며, 중국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변화에 대하여 분명하고 상세히 표현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행위(미국경제의 미래를 위협에 빠트리는 행위)에 변화가 없었음.

1) 7월 11일 오후 미국의 2,000억불 추가관세 관련 보도 이후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내용은 새롭지 않지만 시점이 갑작스럽다는 의견이 다수

- 광범위한 소비재와 중국제조 2025 관련 기술제품(평면패널 디스플레이 등) 등 6,031개 품목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지만, 관세 부과 품목 목록의 확정 및 발효까지 2개월 정도의 심사절차가 필요함을 보도
  - 식품, 담배, 가방·의류, 가구, 석탄, 화학제품, 타이어, 애견사료, TV 부품을 포함한 전자제품 등이 포함됨.
  - 8월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 뒤 20~23일 공청회 개최, 30일까지 반박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 등을 언급
-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미국 각계의 다양한 비판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미중간 무역전쟁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및 미국 자신에게도 부정적임을 강조
  - 미국소매유통연합회 부총재는 “제 발등 찍기” 라며, 생활용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의 수천만 일자리가 사라져 농민, 기업, 사회 모두 피해를 입게 됨을 강조
  -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일부 기업이 관세 조치로 투자 프로젝트를 중지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했다고 밝힘.
  - 미국 공화당 의원이자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Orrin Hatch는 중국의 기술이전제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를 지지했으나 이번 조치는 너무 저돌적이며, 중국과의 협상카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미국경제의 장기적 건전성과 번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
- 또한 중국 내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조치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보도
  - 단기적으로 중국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장기적으로 중국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과대평가 불필요
- 한편, 일부 미국 관료의 지지와 자신감을 보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총 5,000억 달러 규모 이상(미국의 대중국 전체 수입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언급
  - 미국은 양호한 경제 여건으로 무역전쟁이 가능한 상황이며, 최근 미국의 취업통계도 여전히 건실 (6월 신규 취업이 21.3만 명) 

#### 참고자료

- 金投网, 「商务部回应美国加征关税：干扰经济全球化进程」, 2018年 7月 11日
- 金融界网, 「商务部回应美2000亿美元加征关税清单：完全不可接受」, 2018年 7月 11日
- 新浪网, 「美拟对2000亿美元中国产品加征关税 外交部回应」, 2018年 7月 11日
- 『21世纪经济报道』, 「美国公布拟对华2000亿美元商品加税清单 商务部表态立即向WTO追加起诉」, 2018年 7月 12日
- 中国日报网, 「美拟对华2000亿美元输美产品加征关税 美企业及议员公开谴责」, 2018年 7月 12日
- 『环球时报』, 「细看美国2000亿美元征税清单, 到底多可怕?」, 2018年 7月 12日
- 『央视财经』, 「解读商务部声明：一问 到底是谁“不公平”?」, 2018年 7月 14日